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

60~70여 어린이가 법회를 찾아왔다. 스님은 법회를 찾은 어린이들에게 하나하나 통장을 만들어 주며 그들의 불심을 키워왔다.

“꿈은 쉽 없이 키워야 하는데 여기저기 소임 산다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키우지 못하는 꿈은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제하면 결국 낙오하는 것인데...”

재곤 스님은 말을 잊지 못했다. 순간 스님의 얼굴에는 관음사를 더 큰 도량으로 가꾸지 못한 안타까움이라고 하기에 더 깊은 회한이 묻어났다.

하지만 재곤 스님은 확고했다. 심지가 약한 사람이라면 이웃종교인의 역지성(義民性) (관음사 창건) 후 회합 것도 같았는데 스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옥답도 누군가 개척한 사람이 있어요. 황무지를 개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전옥답이 되는 황무지의 소중함을 알 수 없습니



“잘 된 것 있으면 안 되는 것 있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잘 되는 것이 있다”는 스님의 말은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도(道)요, 수행”이라는 말로 이어졌다. 집착을 버리고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연인의 삶, 그것이 재곤 스님이 말하는 참사람이었다.

재곤 스님은 참회를 강조했다.

“잘 하고 잘못 한 것은 자기 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곁과 속이 다른 행동을 했습니까? 매일 5분씩 하루를 돌이키며 자신의 행동을 살펴보세요. 누군가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반성한다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미안한 마음에 서라도 더 잘 해주게 됩니다.”

스님은 수련을 좋아한다. 피운 꽃이 인연이 다해서 질 때도 낙화 없이 물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잠기기 때문이다. 재곤 스님은 “오고 감이

장에게 말해봤는데 돌담을 쌓고 연등을 켜더니 다들 좋아하더군요.”

9군단 법당 불사가 스님의 말 한마디에 세워졌다. 당시 군단 법당은 군단 법무관들이 회의 할 때면 법당 부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재곤 스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군단장 면담을 요청했다. 마침 군단장이 예전에 35사단장을 지냈던 장군이였다.

“일이 되려면 술을 뚫니다. 큰일도 작은 관심에서 비롯되고요. 모든 것이 억지로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재곤 스님은 “생활이 곧 수행”이라 말했다.

없이 깨끗한 수련처럼 회향을 잘 해야 한다”며 “선운사 석사마을에 ‘승려노후수행관’이 지어지면 그곳에 머물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님이 처음 출가했던 선운사로.

나그네는 재곤 스님의 법문을 보고 듣고 가져왔다.(我今聞見得受持)

부처님 말씀이 어려울 것 하나 없다는 스님의 쉽고도 쉬운 말씀, “매 순간 열심히 살고, 참회하라”는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願解如來眞實意?)

순간 황사 개인 가을 하늘이 청명하기만 했다.

글=조동심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재곤 스님은...

1937년 공주에서 출생했다. 1964년 선운사에서 남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1968년 동화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문경 봉암사, 공주 마곡사 선원 등에서 안거를 했다. 고창 선운사 주지를 비롯해 조계종 감찰부장 · 규정부장 등을 지냈다. 조계종 9·10대 총회의원, 종정 사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1984년부터는 군산교도소 지도위원과 9군단, 35사단 등 군포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왔다. 1988년 전북불교총연합회장, 군산불교사암연합회장 등을 맡아 전북불교 활성화에 앞장선 스님은 지금도 전북지역 포교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6. 춘봉 나병기 거사

선지식은 선지식만이 선지식이 아니다. 선지식을 섬기고 받들어 선지식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 또한 선지식이다.

1992년 벽허 김재수 거사와 함께 상락향을 찾아온 수도산인 나병기 거사는 강남 봉은사 1세 주지 나청호(羅淸湖) 스님을 그대로 빼어 닮은 선지식이었다. 80여년을 수도산 속에 살면서 <불괴비철(不壞神帖)>을 중심으로 봉은사의 역사 기록물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뒤에 사람들이 돌려주고 그 자취를 감추었으니 알수 없는 보살이요, 처사요, 거사다.

나청호 스님은 1875년 폭설에서 태어나 1934년 삼청동에서 열반하실 때까지 한국불교를 위해서 헌신한 보살이다. 을축년 대홍수



사진은 수해구제 공덕을 표현한 불화.

15일 세운 ‘을축년 대홍수 기념비’를 송파구의 한 동사무소에 세웠다. 일제는 을축년 대홍수를 겪은 후 1931년까지 용산, 마포, 성동구에 돌을 쌓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울 한강변의 풍광은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1910년 원종 종무원이 일본 조동종과 손을 잡고 일제화하려 하자 오성월, 한용운 스님 등은 일제종을 만들어 원당(圓黨), 임당(臨黨)을 만들었다. 그러자 청호 스님은 “조선불교는 조선불교로 서야지 일본, 중국불교 가지고는 조선인을 살릴 수 없다”하

는 나병기 거사는 훗날 각황사(현 조계사) 법사가 되어 10년 동안 포교하면서 “새벽 도량석을 마치면 석상(佛像)께 우러러 예배하고, 향화 나누기는 밤중에는 경서를 익혔다” 하니 자비의 비는 못 증생들을 축여주고, 진리의 빛은 요사한 마음을 없애주었을 것이다.

언젠가 봉원사 법회에 갔다가 찾아보니 다 찌그러져가는 매심당(淸호 스님의 살림방)에서 길이 11cm, 넓이 9cm, 두께 1.5cm 되는 청죽에 새겨진 ‘항상 정전 백수(庭前栢樹: 조주 선사께 한 선승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라고 물으니 조주 선사께서 ‘물 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한 화두)를 보고 삼독(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제하고, 늘 <법화경>을 읽으며 4은을 갚는다”

삼촌인 청호 스님 뜻 새기며 정진... 각황사에서 10년 포교도

때 한강에 떠내려가는 708명을 구제하여 불교의 자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스님이다.

1925년 7월 장미철에 3주야를 계속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40여 척에 육박하는 등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대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봉은사 대안의 잠실, 부리, 신천 등 세 마을은 완전 수몰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아무도 구호의 손을 뻗지 못하는 그때, 봉은사 주지 나청호 스님은 묵선 5척을 임대해 무려 708명의 생명을 구하고 팔과 의복, 수해 의연금 등을 지원하는 등 구호 활동을 전개하셨다. 그후 스님의 미덕을 기리는 시와 그림과 글이 전국에서 담지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모아 만든 <불괴비철>과 수해구제공덕비가 지금도 봉은사에 남아있다.

또 당시 대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후세에 경각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듬해인 1926년 7월

여, 먼저 한국 전통사찰 봉은사 주지가 되어 정법도량으로서의 승가림을 모범적으로 견설했다. 곧이어 황무지 10정보를 개간, 200여 척을 거두어 드리는 농·선 일치의 불교를 실천했으며, 1915년에는 임야 53정보를 측량해 사유지(寺有地)를 만들어 놓고, 1922년 <선가의범(禪家儀範)>을 편찬해 원조기재(遠祖忌齋)를 설립하자 10만 인파가 동원되었으니, “말로만 떠들던 산중불교가 이제야 명실 공히 도시 불교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칭송이 자자했다.

생각하면 이 넓고 광활한 땅이 누구에 의해 어디로 다 팔려나가고 지금은 수도산 한 자락에 남작하게 서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봉은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청호 스님의 피어린 정성과 용맹정진, 그리고 당시 사부대중의 호법정신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청호 스님의 조카로 알려진 춘

하는 청호 스님의 어짐(해갈피에 쫓는 판)을 놓고 공부하고 있었다.

평소 청호 스님을 이토록 존경했던 나병기 거사는 스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청호 스님은 원호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자에 머물지 않고, 감상적처럼 천지를 유랑했으나 먹고 노는 것 때문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원호 스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늘 ‘진속무염 원응무애(眞俗無染 圓融無碍)’의 액자를 걸어 놓고 원호 스님의 원응불교를 실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원호 대사의 <십문 화쟁론>은 실천불교의 화두였다 합니다.”

나병기 거사는 원호 스님과 청호 스님처럼 세속에서 보살행을 하며 살다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텝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붓 공 사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함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지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